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25.(금) 조간 2022. 11. 24.(목) 11:00	배포 일시	2022. 11. 24.(목) 06:00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조영진 (044-200-5818)

스마트 해양시대의 사이버 위협, 어떻게 대응할까

-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토론회 개최(11.25.(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차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토론회를 11월 25일(금) 부산에서 개최한다.

해상운송 분야에서도 전자해도, 전자항법장치, 위성통신장비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장비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운항 선박이나 원격제어선박과 같은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선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사이버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국가정보원과 함께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한국정보보호학회, 부산항만공사, 한국선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해사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해사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사이버안전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정보보호학회에서는 안전한 원격제어를 위한 기술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술을 해상운송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이버보안 모델로, 사용자 또는 기기가 접근을 요청할 때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이 이뤄진다고 해도 최소한의 신뢰만 부여해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육상분야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사 분야에서도 사이버 안전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

‘해사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제 차 스마트 해양시대의 사이버위협 대응방안

I 추진배경

해양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해사 사이버안전 관련 정책제언 등을 위한 논의(포럼)의 장 마련

I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2. 11. 25.(금) 14:00~17:30(만찬 별도) / 목장원 컨벤션홀(부산)
- 참석자 해운·조선·정보통신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100명 내외
- 주요내용 해사 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산업·기술동향 및 정보 공유, 정책 수립·개선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종합토론 등



사전등록

I 전문가 포럼 일정

일정	내용
14:00~14:15	개회,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4:15~15:00	특별 세션 ▸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제언 등
15:00~15:30	[1세션 정책·전략] ▸ 해사 사이버안전 정책 진단과 방향성
15:30~15:50	Coffee Break
15:50~16:20	[2세션 연구개발] ▸ 스마트해양 시대 사이버보안 내재화를 위한 R&D 전략
16:20~16:50	[3세션 산업]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기술 선도 방안
16:50~17:30	종합토론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해운협회 등)
17:30	폐회(폐회 후 만찬)

주최 해양수산부·국가정보원

참여 부산항만공사·한국선급·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정보보호학회